

2010년까지의 장기 산업 발전 전망과 비전

강 명 수*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간의 전쟁이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가고 있다.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크게 실패했던 소련과 달리 미국은 단기간에 최소의 손실로 전쟁을 이기고 있다. 이러한 빠른 승리의 원인은 반탈레반 세력, 첨단기기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은 미국측의 정보수집능력과 효과적인 전쟁전략이라고 한다.

전쟁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세계에서든 정확한 정보수집과 사업전략이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며, 특히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작년의 9.11 테러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세상사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기술의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산업의 중장기적인 변화전망을 갖고 있다면 기업들의 사업계획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산업전체의 對内外경쟁력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에서는 1년에 걸친 공동작업을 통해

「2010년 산업발전 전망과 비전」을 마련했으며, 작년 10.25 「제3차 산업발전심의회」를 통해 심의·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발표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은 주력전통산업, 신기술산업, 부품·소재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의 4개 산업군을 주축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을 전후해서 자동차, 조선 등 주력전통산업이 성숙단계에 도달하고, 부품·소재산업의 수출산업화, 신기술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높은 성장세로 산업구조가 선진형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자동차, 조선 등 대부분의 주력전통산업은 2010년을 전후해서 성숙단계에 도달하면서 계속 수출을 주도하고, 신기술산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이를 때까지 산업의 뒷줄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현재 주력전통산업은 세계 일류수준의 생산조립기술을 기반으로 조선(세계1위), 자동차(세계5위), 석유화학(세계5위), 철강(세계6위) 등 높은 수준의 세계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률은 다소 떨어질 것이나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사무관, 경제학 박사
(미국 미주리주립대)

업종별로는 자동차, 일반기계, 가전 등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모두 증가하며, 특히 일반기계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조선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은 중국이 현재 건조설비를 꾸준히 늘리고 있어 2001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 하락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의 기초소재산업은 중국 등 후발개도국들의 생산능력 증대에 따른 수출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세계시장점유율이 하락될 전망이다. 섬유산업의 경우는 생산·수출은 계속 증가하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중국 등 후발개도국들의 수출시장 잠식으로 2010년에 4.5%로 낮아질 전망이다.

업종내부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전산업에서는 전통가전의 비중은 다소 감소되는 반면, 디지털 TV, DVD, MP3 플레이어 등 디지털 가전의 급신장으로 산업내 구조고도화가 크게 진전되고 국내업체들이 일부 신제품개발을 주도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은 품질, 성능 및 디자인 기술의 향상과 더불어 수익성이 높은 중대형차, SUV 등의 비중이 늘어나고 차종이 다양화되며 부품 수출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산업은 촉매 등의 공정기술,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질적 투자 확대를 통해 구조고도화가 진전될 전망이며, 철강산업은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합리화 투자 및 용융환원제철 등 혁신기술의 실용화가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섬유산업은 저가품 생산설비는 해외로 이전되고 국내에서는 고급·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체계 구축될 전망이다.

주력 전통산업의 발전전망

(단위 : %)

	2000~2010 (연평균)		세계시장점유율			산업발전단계 변화	
	생산 증가율	수출 증가율	2000	2005	2010	2000	2010
자동차	3.1	4.8	5.4	6.0	6.6	성숙단계 진입	성숙단계
조선	-2.8	-3.2	40.6	41.5	38.0	성숙단계 진입	성숙단계
철강	3.7	-0.3	6.0	5.8	5.7	성숙단계	성숙단계
석유화학	3.3	-2.3	5.1	4.9	4.4	성숙단계 진입	성숙단계
일반기계	6.5	9.0	2.8	2.8	4.0	성장단계	성숙단계
섬유	3.8	2.0	5.0	4.8	4.5	성숙단계	성숙단계
가전	5.5	4.4	8.1	9.0	9.3	성숙단계 진입	성숙단계

주:주력전통산업의 전망치에서는 부품은 미포함

둘째, IT·BT·ET·NT 등 신기술산업은 산업발전단계상 현재 도입기 또는 성장초기 단계에 있으나 향후 10년간 빠른 기술혁신과 고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속적 발전으로 전체산업에서의 상대적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이다. 신기술산업은 2010년까지 세계시장 성장률 5.8%(연평균)보다 빠른 성장을 시현하면서 생산은 연평균 7.7%, 수출은 연평균 9.2% 증가될 전망이다. 업종별로 세계시장점유율을 전망해보면, 생물(BT)산업은 2000년 1.9%에서 2010년 3.3%로, 환경(ET)산업은 2000년

신기술산업의 성장 및 세계시장 점유율 전망

(단위:%)

	2000~2010 (연평균)		세계시장 점유율		
	생 산 증가율	수 출 증가율	2000	2005	2010
신기술산업	7.7	9.2	4.5	5.0	5.4
반도체	5.8	7.5	11.7	11.9	12.4
일반전자부품	5.6	11.3	4.9	5.6	6.1
통신기기	10.7	14.6	5.5	6.1	6.5
컴퓨터	5.6	5.0	4.6	4.5	4.9
생물(BT)	11.7	12.1	1.9	2.6	3.3
환경(ET)	18.9	22.3	1.1	1.6	2.1

1.1%에서 2010년 2.1%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신기기는 2000년 5.5%에서 2010년 6.5%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반도체는 2000년 11.7%에서 2010년 12.4%로, 컴퓨터는 2000년 4.6%에서 4.9%로 소폭 증가될 전망이다.

셋째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였던 일반기계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산업용 전자부품 등이 수출산업화하면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일본, 독일의 산업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조립·완제품 위주의 성장에서 점차 탈피하여 부품·소재분야의 발전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부품·소재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희망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중간재·자본재 시장의 점유율 확대가 발전의 관건이며, 세계적 부품·소재 기업과의 제휴 및 이들의 국내 유치를 통한 국내기업의 기술적 고도화가 필요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자부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음극선관, 액정모니터를 중심으로 한 높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00년 4.9%에서 2010년 6.1%로 1.2%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부품과 일반기계부품은

국내 주요 부품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전망
(단위 : %)

	2000	2005	2010
일반전자부품	4.9	5.6	6.1
자동차부품	4.8	5.4	6.4
일반기계부품	3.1	4.5	5.5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주요산업에서 부품생산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전망
(단위 : %)

	2000	2003	2005	2010
자동차	34.6	35.8	36.6	42.3
전자	58.9	59.9	59.4	60.0
일반기계	30.7	32.5	33.4	36.1
합계	47.1	49.4	50.0	52.8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내수위주에서 벗어나 수출산업화하면서 세계시장점유율이 자동차부품은 2000년 4.8%에서 2010년 6.4%로, 일반기계부품은 2000년 3.1%에서 2010년 5.5%로 증가될 전망이다. 수출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해 부품산업은 완제품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어 각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부품생산의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로, 지식서비스산업은 2010년까지 비즈니스서비스, 문화 및 오락 서비스가 매년 10%이상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자상거래는 연평균 81.2%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면서 생산·고용, 수출의 주축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지식서비스산업은 성장기에 걸쳐있는 산업으로서 다양한 시장분화가 예상되며, 국지적 시장경쟁이 격화되면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는 제품차별화 경쟁이 예상된다.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통산업에서는 대형점의 성장으로 중소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은 해마다 감소하여 외적 구조의 변화 진행되고, 유통산업에서 유통관리의 광범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이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사항으로 등장하며,

전자상거래는 현재 기업-소비자간 거래(B2C)가 중심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기업간(B2B) 형태로 발전하고 향후 유통산업을 주도할 전망이다. 정보통신서비스는 인터넷의 활성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전통적인 통신에 부가통신, 인터넷통신 및 인터넷컨텐츠,

공업의 비중(%)은 기계·전자분야를 중심으로 2000년 82.4%에서 2010년 86.8%로 증가할 전망이다. 성장성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반도체·통신기기 등 성장유망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전통산업중 「일반기계」 분야의 비중은 증가하되 석유화학, 철강, 섬유·의류 등 여타 전통산업의 비중은 낮아질 전망이다.

주요 지식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전망
(단위 : 10억원, %)

구 분	2000	2005	2010	연평균증가율	
				01~05	06~10
도소매	46,563	58,583	70,592	4.7	3.8
전자상거래 ¹⁾	225	11,612	85,930	81.2	
통신서비스	19,349	34,868	55,142	12.5	9.6
사업서비스	15,272	28,548	48,126	13.3	11.0
· 광고	918	1,393	1,954	8.7	7.0
· 비즈니스서비스	14,354	27,155	46,172	13.6	11.2
문화 및 오락	8,358	15,951	26,879	13.8	11.0
· 영화 및 연예	455	892	1,537	14.4	11.5
· 방송	2,093	3,943	6,235	13.5	9.6
· 오락 및 스포츠	5,218	10,270	17,937	14.5	11.8

자료 : 산업연구원 전망(1995년 불변가격 기준)
주 : 1) 앤더슨 컨설팅의 수요전망치. 단위는 백만 달러 (경상가격)

디지털방송 등이 부가되어 새로운 형태의 지식서비스로 변모될 전망이며, 법무, 회계, 컨설팅, 광고, 디자인,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비즈니스서비스는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을 보였으나, 향후에는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주요부문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010년까지의 제조업내 업종구조 변화를 전망해보면, 2010년에는 제조업 전체에서 공업의 비중(95년 불변가격기준)은 2000년 17.6%에서 2010년 13.2%로 감소하고 중화학

제조업내 업종구조 변화전망
(단위 : %)

		1990	1995	2000	2005	2010
제조 형태 기준	경 공 업	39.5	26.9	17.6	15.1	13.2
	중화학공업	60.5	73.1	82.4	84.9	86.8
	(기초 소재)	27.1	31.2	26.6	25.2	24.4
	(기계·전자)	33.3	41.9	55.8	59.7	62.4
성장성 기준	성장유망산업	12.2	17.3	35.4	39.7	43.2
	반도체·통신기기	5.2	9.7	25.2	29.2	32.2
	컴퓨터·사무용기기	0.8	1.1	5.6	5.5	5.4
	정밀기기	0.7	1.1	1.0	1.1	1.2
	정밀화학	4.4	4.1	2.6	2.8	3.2
	비철금속	1.0	1.2	1.0	1.1	1.2
	전 통 산 업	50.4	48.7	39.1	37.7	36.6
	일반기계	4.2	6.2	4.5	5.0	5.6
	가정용 전기전자	4.6	3.6	2.5	2.4	2.4
	자 동 차	10.4	10.7	9.2	9.2	8.9
	조선·철도차량·항공	1.9	2.7	3.8	3.7	3.4
	석유화학	4.3	5.7	5.6	5.2	5.0
	철 강	6.7	7.3	6.0	5.7	5.5
	제 지	2.3	2.2	1.6	1.4	1.3
	시 멘 트	3.3	3.0	1.8	1.7	1.5
	섬유·의류	10.9	6.0	3.7	3.1	2.8
신발·피혁	3.8	1.3	0.4	0.3	0.2	
기 타	37.4	34.0	25.5	22.6	20.2	
제조업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995년 불변가격 기준임.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기타는 식음료산업, 인쇄출판산업, 비금속광물 등임.
한국은행 통계는 부품산업과 완제품산업을 함께 포함